

책 읽는 도시들, 사단법인 설립 추진

전국책읽는도시협 임시총회

전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책 읽는 도시'들이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과 책 읽는 대한민국의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전주시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에 가입된 전국 26개 '책 읽는 도시'의 단체장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8 책의 해'인 지난해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높이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기구로 현재 회장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날 임시총회는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축사에 이어 △사단법인 설립과 의제 채택을 위한 안전심사 △자치단체 문화프로그램 소개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초청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안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단법인 설립 허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아 협의회 위상을 정립키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또 전국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독서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전주시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에 가입된 전국 26개 '책 읽는 도시'의 단체장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작은도서관 운영 국비 지원 등 3개 정책 의제 채택 · 정부 건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2020년 이후 정책 방향' 주제 특강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국에 책 읽는 도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는 사단법인 설립과는 별도로 책 읽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세 가지의 제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3대 안건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책 읽는 도시의 전국 확산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법제 근거 마련' △공공·사립작은도서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17개 광

역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 설립, 도서정리, 운영교육,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컨설팅을 맡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2020년 이후의 공공도서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의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들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에 '온 힘'

전북경찰청 화재감식팀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화재감식팀 운영하며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함께 예방을 위해 힘 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감식팀은 국제공인화재폭발조사관 1명, 화재감식전문관 1명, 전문수사관 2명으로 구성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현장에서 현장의 연소형태를 살펴 발화원인을 파악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의 원인은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와 과실에 의해 발생한 실화, 전기, 기타(가스·자연발화, 건물붕괴 등)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도내 최근 3년(2017~2019년 10월 기준) 화재 원인 분석결과, 총 1,445건 중 방화 93건(6.4%), 실화 348건(24.1%), 전기 581건(40.2%), 기타 423건(29.3%)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선 절연물 경화 및 노후된 가전제품 취급 부주의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전주의 한 2층 건물에서 불이나 건물 내부와 집기 등 소방서 추산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시작된 1층 상가는 폐업상태로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 발생을 한 상태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계자가 전기



를 차단하지 않아, 전기 기기의 플러그가 접속된 6구 콘센트가 합선 돼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그만큼 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 기준에 따르면 2018년 전북 화재건수는 2,044건으로 건당 평균 피해액 1,4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겨울이 다가오며 난방을 위해 전열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경찰청 화재감식반은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 전원 플러그는 분리할 것을 권했다. 또한,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다운 기자

전북청, 국제로타리 3670지구와 사회적 약자 보호 협약

전북경찰청이 국제로타리 3670지구와 '사회적 약자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각종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그 가족 지원 등이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전북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약자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약자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전북경찰청에서 피해자들의 충분한 회

복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된 회의로, 도내 11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총 159가정에 3억 5천만원의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약자에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 만들기 위해 상호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정다운 기자

시민행복 '최우선' ... 공공도서관 '변신'

내달 시립도서관 '꽃심' 개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가 다음달 12번째 시립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개관하고, 책놀이터 조성과 직장인과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생활을 위한 개방시간 연장에 나섰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행복한 여가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서관 인프라 확충 △개방시간 연장 △책놀이터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서관 인프라 확충의 경우, 시는 막바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인근에 들어선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개관할 예정이다.

국비 30억원 등 총 108억원이 투입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3397㎡

부지에 연면적 4042㎡, 지하층, 지상4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유아 자료실 △트윈세대전용공간 △문화강좌실 △다목적 강당 △사무실 등을 갖췄다.

특히 꽃심도서관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낀 12세부터 16세까지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인 '우주로1216'이 조성됐으며, 그간 완산도서관이 맡아온 전주시 대표도서관 역할을 이어 받아 시민 독서문화 조성 등을 이끌게 된다.

시는 향후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유지를 통해 전북혁신도시에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도서관을 기존 완산·송천·아중·쪽구름 등 4개관에서 3개관을 추가한 7개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추

가 연장 운영 도서관은 현재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평화도서관(12월 재개관 예정)과 도서관 이용자가 수가 많은 효자·서신도서관이다.

평화·효자·서신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평일 일 반자료실은 오후 10시까지, 어린이자료실은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내년에는 기존 완산도서관 대신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포함한 총 7개관을 연장 운영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영유아와 어린이가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야호 책놀이터인 '개방형 창의도서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중인 평화도서관에 이어 올해 삼천도서관도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인후·금암 2개 관에도 개방형 창의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다./김윤상 기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농업인의 날 감사패 수상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이 11일 전주 알렌시아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최무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등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신뢰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예수병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사원으로부터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최무열)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등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음을 발표했다.

앞서 예수병원은 지난 2011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있어 적정 수준을 달성하였다'는 의미로 4년간 유효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2015년에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고 4년 후인 올해 3번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김윤상 기자

1만 기부천사의 후원 릴레이... '삼삼한 챌린지' 기념행사

전주시복지재단이 소액후원 기부 릴레이를 통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1만 명의 천사시민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유창희)은 11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기부 릴레이인 '삼삼한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삼삼한 챌린지'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이 기획한 소액기부캠페인으로, 매일 1만004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기부천사'가 SNS를 활용해 3일 안에 3명의 기부천사를 추천하는 특별한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전주사랑은 1만여 명의 기부천사를 모집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날 기부 릴레이의 첫 걸음을 뒀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1만 기부천사의 시작을 열어줄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등 총 40여명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11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기부 릴레이인 '삼삼한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의 '이름'이 40개의 퍼즐을 완성하며 전주사랑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한 '삼삼한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이름이는 향후 릴레이를 이어갈 기부천사 추천 등 1만 기부천사가 전주사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전주사랑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총 33일간 SNS(페이스북)를 통해 '삼

삼한 챌린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SNS를 이용하지 않는 미래 기부천사를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게 된다.

전주사랑에게 행복을 전하는 기부천사로 함께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홈페이지(www.jwf.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0050)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원 족구 발전 기여 감사패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송천1·2동)이 10일 전주시 족구협회(회장 성명기)로부터 전주시 족구인들의 편의·안전에 앞장서고 족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덕진체력공원 내 족구장 건립에 앞장섰고 족구장 사용료 인하 등 족구인들이 맘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족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윤상 기자

덕진구 생활복지과,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덕진구청 생활복지과(과장 진교훈)에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3757세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차상위 보장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으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연계 등 조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신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탈수급자 등

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34세 미만 청년 자녀에 대한 부양무자 완화 기준 등을 적용중이며 내년 1월 부양비를 완화 예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지지를 보류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경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정·부정수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정복형 생계급여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탈수급자 등

/김윤상 기자